

#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김년희\*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e-mail:younhee7108@hanmail.net

## The Effects of Depression of the Single Seniors with Chronic Diseases on Drinking: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Nyeon Hui Kim\*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Keimyung University

### 요 약

최근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8년에는 14.3%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독거노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이중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 및 음주문제가 일반 노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 음주, 사회적 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울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3차 한국복지패널(KW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만성질환 독거노인 2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음주, 사회적 관계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사회친분관계만족도) 간에는 정적 및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은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친분관계만족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은 음주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 음주 및 사회적 관계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사회친분관계만족도) 간에는 정적 및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의 지지되었다. 둘째,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과 음주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가족관계만족도는 음주를 줄이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우울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사회친분관계만족도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설명력은 11%이며, F값은 3.230(p<.01), 성별의  $\beta$ 값은 -.212(p<.01), 종교의  $\beta$ 값은 -.164(p<.01)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의 설명력은 15%이며, F값은 4.304(p<.001), 성별의  $\beta$ 값은 -.216(p<.01), 연령의  $\beta$ 값은 -.145(p<.01), 종교의  $\beta$ 값은 -.145(p<.05)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  $\beta$ 값은 .234(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18%이며, F값은 4.288(p<.001), 성별의  $\beta$ 값은 -.206(p<.01), 연령의  $\beta$ 값은 -.162(p<.05), 종교의  $\beta$ 값은 -.135(p<.05),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  $\beta$ 값은 -.175(p<.05)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  $\beta$ 값은 .222(p<.01)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의 설명력은 22%이며, F값은 4.409(p<.001), 성별의  $\beta$ 값은 -.214(p<.01), 우울\*가족관계만족도조절의 경우  $\beta$ 값은 -.863(p<.01)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의 일부 채택되었다.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우울과 음주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가족관계만족도는 음주를 줄이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우울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사회친분관계만족도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만성질환 독거노인은 가족관계만족도를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관계만족도 중 특히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음주를 낮출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